

삼양사, CJ와 제넥솔PM 독점판매 계약

삼양사는 폐암,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받은 항암제 <제넥솔PM주>의 국내독점 판매권을 CJ에 주기로 하고 조인식을 가졌다고 1월24일 발표했다.

<제넥솔PM주>는 삼양사가 생체고분자와 약물전달 기술 등을 사용해 개발했으며 2월 국내출시를 앞두고 있다.

삼양사는 2001년 개발한 항암제 <제넥솔주>도 CJ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왔다.

삼양사 관계자는 “제넥솔주는 누적 판매액이 300억원을 돌파해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”면서 제후 확대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.

삼양사는 <제넥솔PM주>가 2002년 미국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현재 미국 현지 병원 15곳에서 췌장암에 대해서도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1/25>